

원치않는 온라인 쓰레기

스팸메일, 흥! 난 내 밥식대로 처리해!

김 하 연

Internet@site 취재기자 / dawnfour@internet-site.co.kr

창경궁과 비원이 좁은 길로 나뉘어져 있는 돌담길. 밤 10시 느긋하게 걷고 있던 아가씨. 뒤에서 남자의 투박스런 구두 소리에 놀라 뒤돌아 볼 엄두도 없이 '또각 또각' 쟁 발걸음으로 갈 길을 재촉한다. 뒤에 오는 사람이 불량배이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 상대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접촉을 갖는다는 것은 늘 불안감과 불쾌감을 동반한다. 인터넷 시대에 이런 느낌을 받는 대표적인 것으로 스팸메일을 꼽을 수 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서 무조건 배달되어 오는 메일. 그렇다면 이런 스팸메일을 안 받아볼 수 없을까?

스팸메일(Spam Mail)은 정크메일(Junk Mail), 벌크메일(Bulk Mail)이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받기를 원치 않는 메일을 통틀어 일컫는다. '스팸'은 미국 Hormel Foods사에서 만든 먹는 '깡통에 든 햄(Ham)'의 대명사로, 이 회사가 '스팸'을 홍보하는 방법이 아주 유별났다. 모든 역량(?)을 광고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흔히 엄청난 광고로 인한 공해를 '스팸'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스팸메일을 보내는 사람을 '스팸머(spammer)'라고 한다.

그렇다면 스팸메일은 일종의 광고 기법으로 합법적일까? 결코 아니다. 스팸메일은 수신자인 네티즌의 의사에 상관없이 송신자가 일방적으로 보내는 메일이므로 '불법'이다. 스팸메일은 네티즌의 신변을 위협하고 저속한 내용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문화적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으므로 마땅히 제재되어야 한다. 특히 네티즌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인터넷 사용 속도의 저하나 온라인 상의 인간 관계에 대한 불신은 치명적이다.

이것이 스팸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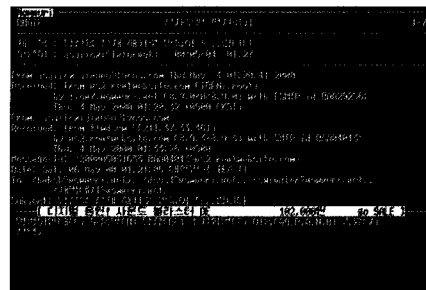
스팸메일하면 쉽게 떠올리는 것들도 포함될 것이지만, 우리가 흔히 입게되는 메일도 스팸메일에 속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스팸메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광고 메일이다. 가장 흔한 스팸의 유형으로,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홍보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같은 메일을 보낸 경우다. 또 설문 조사메일도 최근에 나타난 스팸메일의 새로운 유형으로, 보내는 당사자들이 아직 이런 류의 메일이 스팸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것도 명백한 스팸메일이다.

또한 행운의 편지와 돈벌기 메일도 스팸메일의 일종. 청소년 시절에 누구나 겪어 보았던 행운의 편지가 인터넷 상에서도 재연되고 있다. 편지를 받으면 필히 같은 내용의 메일을 몇 명 이상에게 보내야만 자신에게 행운이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이 따른다고 겁(?)을 준다. 하지만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하나의 사기행각에 불과하다.

또 6천원으로 6억을 번다는 돈벌기 메일도 스팸의 한 종류이다. 메일을 받은 후 목록에 있는 몇 명(6명)에게 1천원씩을 보내면 자신도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사기를 친다. 물론 말을 믿고 보내는 어리석은 네티즌도 있다.

그리고 스팸메일과는 약간 다르지만, 메일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거나 업무에 방해를 줄 목적으로 특정 또는 불특정 개인 및 다수에게 보내는 메일폭탄(Mail Bomb)도 스팸메일의 변종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전세계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던 'I Love You' 바이러스도 메일 폭탄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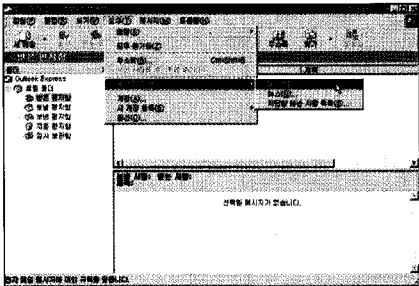


(그림 1) 스팸성 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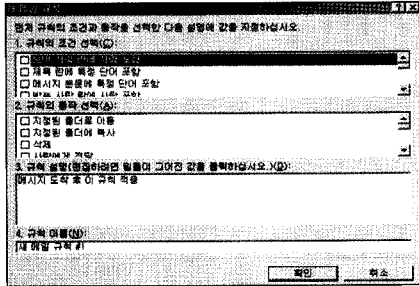
스팸메일 방지와 대책

스팸메일을 항상 당하고 있을 것인가! 창이 있으면 방패가 있듯이, 스팸메일에 대한 대책도 있게 마련이다. 스팸메일을 차단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가 있다.

1. 메일 서버에서 차단하는 법
2. 웹메일 서비스에서 차단하는 법



(그림 2) 도구메뉴에서 메시지-메일 순으로 선택



(그림 3) 원하는 항목을 선택

3. 메일 클라이언트에서 차단하는 법
4. 네트워크 상에서 차단하는 법

4가지 중에서 메일 서버에서의 차단과 웹메일에서의 차단 그리고 네트워크상에서의 차단 방법은 메일 서버의 운영자 혹은 파워 유저가 사용하는 방법이다. 초보 네티즌이 쉽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메일 클라이언트에서 차단하는 방법이다.

메일 클라이언트는 메일을 받아 보는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것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웃룩 익스프레스나 유도라 그리고 메신저를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메일을 필터링하면 된다. 필터링은 특정한 단어를 지정하여 거르는 것을 말한다.

즉 '8억'이라는 단어가 든 메일을 받고 싶지 않다면, 필터링할 단어에 '8억'을 넣으면 메일 내용이나 제목 중에서 '8억'이 들어 있는 메일은 삭제되거나 사용자가 지정한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아웃룩 익스프레스에서 예를 들어보면 '도구' 메뉴에서 '메시지 규칙'을 이용하면 메일에 필터링 효과를 줄 수 있다. 필터링은 메시지 규칙 창에서 '규칙의 조건 선택'과 '규칙동작 선택'을 결정하고 나서 '규칙 설명' 항목에 구체적인 단어나 메일 보낸 사람의 이름을 입력하면 된다(그림 2~4).

아예 스팸메일을 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받고 싶지 않다면, 전문 필터링 유틸리티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필터링 유틸리티를 사용하면 메일 서버에서 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 가기 전에 미리 차단해준다. 대표적인 유틸리티로는 SpamKiller, SpamEater 등이 있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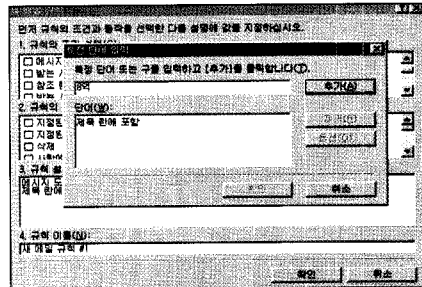
하지만 필터링 유틸리티의 단점은 한글 지원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과 Hanmail이나 Yahoo 메일 같은 웹메일은 필터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하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팸메일을 받았다면 어디서 메일을 보냈는지 밝혀내고, 그 사실을 메일 서버를 관리하는 ISP업체에 적극 항의해야 한다. 스팸메일의 추방은 누구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스팸메일에 대한 온라인 상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인터넷 언론을 표방하고 있는 뉴스보이(www.newsboy.co.kr)에서 스팸메일 관련 신고를 받고 있고, 신고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결도 해주고 있다. 이곳에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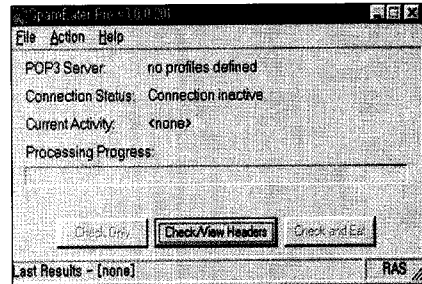
스팸메일은 바이러스다

스팸메일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외국의 경우 스팸메일을 범 죄 행위로 간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국내는 아직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 아직 정부 기관에서도 변변한 스팸메일 신고 접수나 해결을 전담하는 곳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만 봐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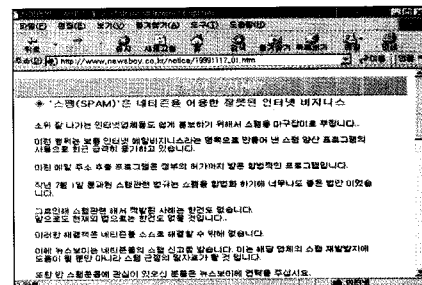
하지만 분명 스팸메일은 바이러스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 이상의 반 사회적 범죄이므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이 분명하다. '에이 뭐 이 정도 가지고 뭘' 하며 넘기지 말자. 한사람의 힘이 아닌 네티즌 전체의 힘만이 스팸메일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Clear Spammail **KCRC**



(그림 5) 필터링할 단어나 사람이름 입력



(그림 5) SpamEater 화면



(그림 6) Spam mail 신고처

스파머를 막아주는 웹메일들

최근 스팸메일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웹메일 서비스들은 다양한 스팸 방지 기능을 서비스하고 있다. 차단 방법은 스팸머를 등록해 두면 메일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스팸메일을 차단함과 동시에 서비스의 서버에서 스팸머를 막는 방법을 제공한다. 스팸메일 방지 기능을 지원하는 웹메일 서비스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 캐비메일 www.kebi.com
- ☐ 네띠앙 www.netian.com
- ☐ 마이레터 www.myletter.net
- ☐ 시티넷 www.citynet.co.kr
- ☐ 야우메일 www.yahoo.co.kr
- ☐ 안메일 www.hanmail.net
- ☐ Z-Mail www.zmail.to